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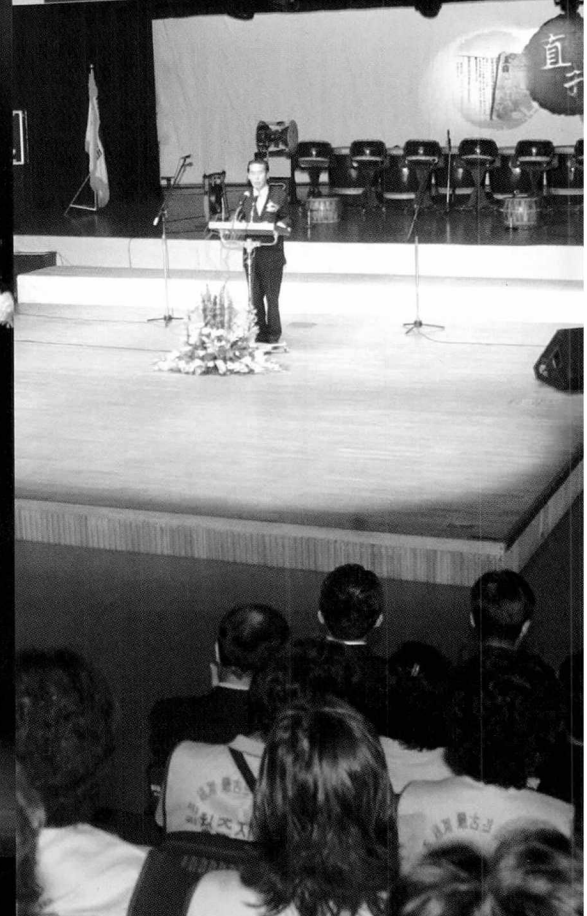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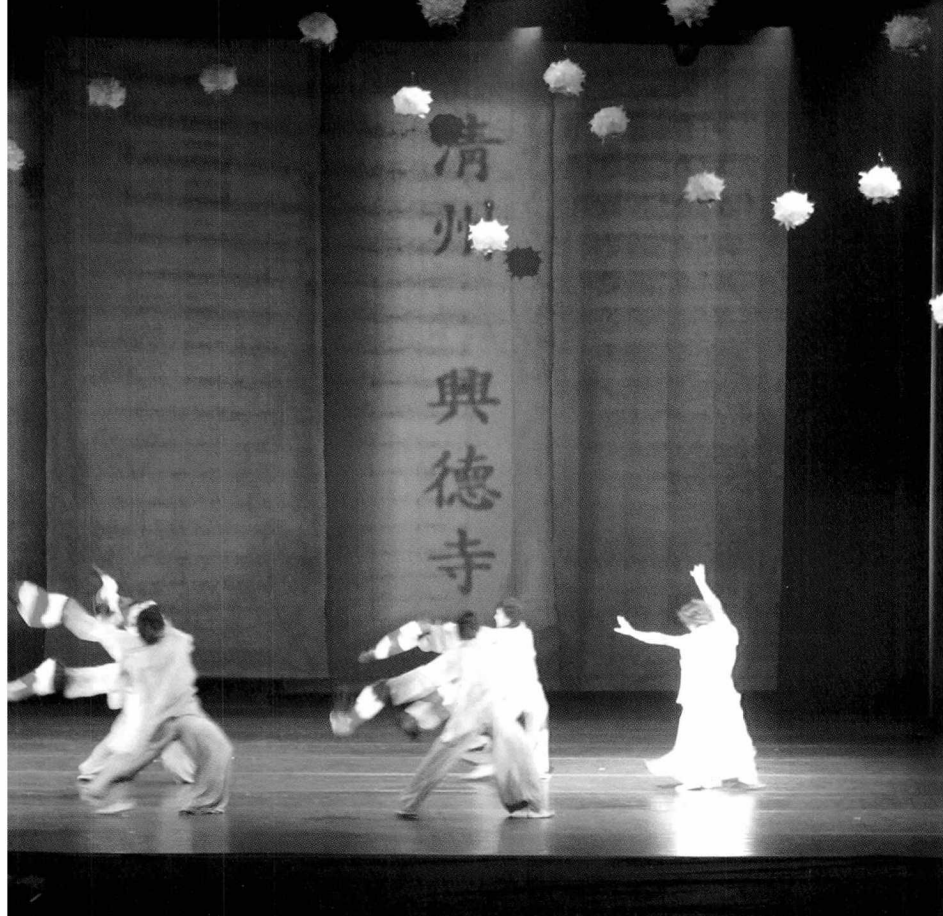
기록유산의 노벨상 '직지상'



2005 유네스코 직지상
2005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체코 국립도서관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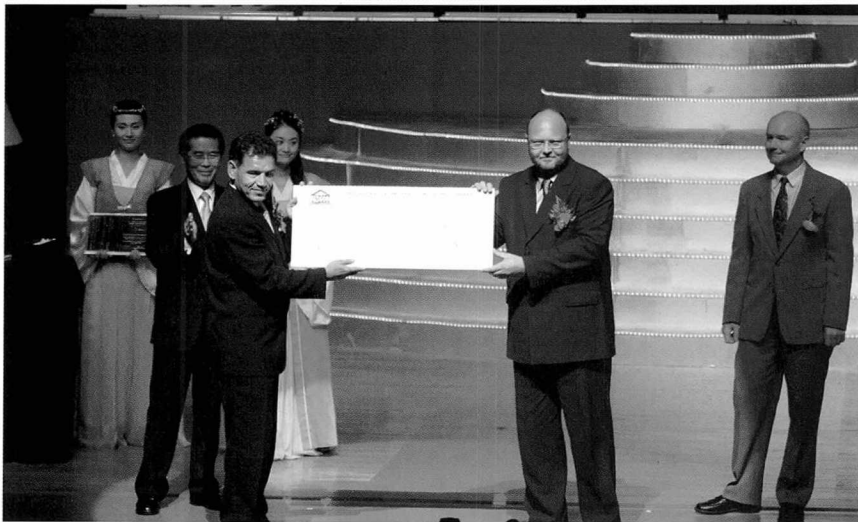
일시 · 2005년 9월 4일(일) 10:00~11:20 장소 · 청주 예술의전





◀ 정동채 한지로 제작된 직지상장

◀◀ 체코 국립도서관 블라스티밀 예제크관장 (오른쪽)이 직지상을 들고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



끝었다. 한 대수 시장은 개식사를 통해 “세계의 석학들은 금속활자의 발명을 지난 천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술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의 가치는 실로 엄청나며 인쇄미디어의 원류라는 점에서 직지의 가치는 가치 세계적”이라고 강조했다. 블라스티밀 예제크 관장은 답사를 통해 “직지상 제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체코 국립도서관이 처음으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청주와 금속활자본 직지의 세계화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국제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2005 유네스코 직지상 행사는 시상식은 물론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등이 치밀하게 기획돼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과 전문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와 해외 석학들은 도시 단위로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뜻 깊은 직지상 제정을 이룩한 청주시의 노력과 추진력에 감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유네스코직지상 행사는 직지상을 수여하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다양한 공연과 학술행사, 특별전을 함께 마련해 세계기록유산과 직지를 폭넓게 이해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기념행사가 ‘청주’와 ‘직지’를 세계인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기억(Memory Everlasting)’으로 남긴 채 9월4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기록유산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1회 직지상의 영예는 체코국립도서관에게 돌아갔다.

청주시와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9월2일 오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이수성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 홍재형·강혜숙 국회의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유네스코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어 체코국립도서관 블라스티밀 예제크 관장에게 직지상과 상금 3만달러, 금속활자 복원판을 전달했다.

2005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은 KBS 2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되는 가운데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와 해외 석학 등 100여명과 시민 1100여명이 청주예술의전당을 가득 메운 채 진행돼 직지와 세계기록유산의 소중함을 만방에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

시상식은 유네스코기록유산 수석담당관 압델라지즈 아비드의 경과보고와 한대수 청주시장의 개식사, 체코국립도서관 블라스티밀 예제크 관장의 답사, 정동채 장관·이원중 충북도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형 LED화면이 좌우로 열리며 수상자인 체코국립도서관 블라스티밀 예제크 관장이 감감한 무대 뒤편에서 등장하는 깜짝쇼가 연출돼 눈길을

제1회 직지상 시상식



▲ 시상식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들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이자 퓨전 아티스트인 재일교포 양방언(45)씨는 지난 1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정적인 연주를 선보여 거듭되는 기립박수를 이끌어 내며 직지상 시상식 전야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2일 시상식 식전공연을 한 국내 타악밴드 그룹 '공명'은 대나무 등을 재료로 자신들이 창조해낸 악기로 우리 국악의 절제미와 서양음악의 자유분방함을 결합한 하모니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전세계 57개국 120점의 세계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세계기록유산특별전은 전세계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청주에서 열려 금속활자 기술혁명의 발신지로서의 청주 위상을 한껏 드높인 계기가 됐다.

한지제작에서 각자장-금속활자주조-배첩장 등 직지 제작의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직지제작 전과정 체험에는 각 분야 무형문화재와 전수자들의 직접 시연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움을 안다'는 운고 자신을 주제로 지난 1일과 2일 열린 2005 세계기록유산국 세미나에는 네덜란드 등 세계 8개국에서 참가한 34명의 석학들이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 기록물의 디지털화 표준 동향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3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을 만든 고려시대 금속활자 주조법의 과학기술적 규명을 위한 학술발표가 열린 연구자들의

논의속에 진행 됐다.

4일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고인쇄박물관에서 흥덕사 발굴 20주년 학술회의가 열려 1985년 청주 흥덕사 위치의 규명 당시를 회고하고, 향후 청주 고인쇄문화의 발전적 전망과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직지의날 · 인쇄문화의 날 행사 연계추진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회장은 지난 9월2일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수성 회장(전국무총리)과 한 청주시장을 만나 9월4일 '직지의 날'과 9월14일 '인쇄문화의 날' 행사를 연계해 거국적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과 한 시장은 홍 회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이날 직지상 시상식 등 직지의 날 행사와 인쇄인들의 명절인 인쇄문화의 날 행사를 전후한 10일 정도를 가칭 '직지 및 인쇄주간'으로 정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 세계직지문화협회, 대한인쇄문화협회의 공동행사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직지와 인쇄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직지의 세계화와 인쇄문화의 증진을 위해 양 행사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우동 회장이 이수성 전 총리와 직지의날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